

K O R E A M A R I T I M E I N S T I T U T E

해양을 따라서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린다

● Contents



□ 중국 산둥성 동잉항 신(新)항만건설 사업 실시	2
□ 우크라이나, 항만 민영화 개혁 시작	4
□ 인도, 비진잠(Vizhinjam) 항만 개발 재입찰 발표	5
□ 필리핀, 마닐라 남항 항만 구역 확장 사업 입찰 계획 발표	6
□ 「2012년 제2차 해외투자사업 타당성조사비용 지원 대상사업」 수요조사	7

## □ 중국 산둥성 동잉항 신(新)항만건설 사업 실시

- 산둥성 동잉항(山东省 东营港)은 1997년에 건설된 국가 1류 개방항구(开放口岸)임
  - 동잉항은 중국 국무원의 허가를 받은 황하삼각주(黄河三角洲)의 중심항이며, 황하삼각주 대외개방의 교두보 역할을 담당하는 루진지(鲁晋冀)지역<sup>1)</sup> 최대의 수출입 항만임
  - 동잉항은 산둥반도와 징진탕(京津塘)지역<sup>2)</sup>의 교통통로 중심지역임
  - 현재 3만 톤급 다목적부두와 케미컬부두를 운영 중이며 공용부두 8개, 5만 톤급 석유부두 2개, 2만 톤급 연료부두 2개, 케미컬 및 원유부두 4개 등 총 16개 부두를 건설 중임
  - '12.5' 기간 동안 50개 선석을 건설하여 처리능력을 5,000만 톤, 2020년까지 1억 톤 이상으로 증가시켜 환발해 중심항만으로 발전시킬 계획임
- 동잉항 경제개발구(东营港经济开发区)는 2006년 4월 산둥성 정부의 비준을 받은 성급 경제개발구임
  - 계획면적은 232km<sup>2</sup>, 개발가능한 면적은 466km<sup>2</sup>로 생태화학공업, 친환경에너지, 현대물류, 선박부품 제조 등 4대 주요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산둥반도 블루경제구역<sup>3)</sup>의 중요지역임
- 2012년 6월, 동잉항 경제개발구 4개 중점사업을 실시
  - 동잉항 경제개발구는 '신 항만, 신 항구지역, 신 항구도시(新港口, 新港区, 新港城)'를 목표로 항만개발 및 통합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2012년에 진행하는 4개 주요 프로젝트는 동잉연합석화유한공사(东营联合石化有限责任公司)의 원유저장기지 이설 및 개조, 산둥티엔홍화학유한공사(山东天弘化学有限公司)의 고무단지 조성, 보항국제(宝港国际) 케미컬부두 건설 및 개발구 공공 파이프라인 건설 등임
  - 4개 사업트의 총 투자액은 235억 위안(37억 달러)으로, 그 중 1기 공사에 147억 위안을 투자할 계획임
  - 4개 사업은 최첨단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진행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향후 산둥성의 경제 및 물류발전에 큰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됨

1) 루진지(鲁晋冀)지역: 중국 산둥성(약칭: 鲁), 산시성(약칭: 晋), 허베이성(약칭: 冀)등 3개성을 포함하는 지역

2) 징진탕(京津塘)지역: 랴오닝성(辽宁), 허베이성(河北), 산둥성(山东) 및 베이징시(北京), 톈진시(天津)를 포함하는 지역으로 중국 주강삼각주, 장강삼각주 다음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경제구역

3) 산둥반도 블루경제구역(山东半岛蓝色经济区): 중국 최초로 해양경제를 테마로 한 국가지역발전전략구역

< 동잉항 위치 >



< 동잉항 경제개발구 계획도 >



자료 : www.chineseport.cn, 2012.6.13

강지현 연구원 (☎ 02-2105-2967, jhkang0813@kmi.re.kr)

이주호 부연구위원 (☎ 02-2105-2890, jooho@kmi.re.kr)



## □ 우크라이나, 항만 민영화 개혁 시작

- 우크라이나는 항만 운영 개혁의 일환으로 2013년부터 항만민영화 제도를 도입
  - 우크라이나는 항만 개혁을 위한 새로운 국가항만법을 제정하고 2013년부터 발효 예정임
  - 항만 운영을 국가소유의 공사에게만 허용했던 이전 법 체계와 달리 새로운 법 체계에서는 민간에게도 운영권을 부여함
  - 이러한 항만부분 민영화는 우크라이나가 소비에트 연방으로부터 분리 독립된 이후 최초의 시도임
-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항만법은 대부분의 항만시설에 대하여 민간 운영을 허용
  - 이전 법 체계는 항만 시설 설치를 국가 소유 토지로 제한하였으나, 새로운 법 체계는 민간 소유 토지에도 항만 시설 설치를 허용함
  - 따라서 항만 주변의 민간 토지 위에 민간 터미널을 건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해졌음
  - 그러나 통신선, 철도 및 고속도로, 난방시설, 상하수도시설, 수리시설, 항해장치, 교통통제시스템 등 항만 주요 시설에 대해서는 민간 운영을 제한함
- 새로운 항만법은 항만 운영을 하고자 하는 민간 기업과 개인에게 다양한 민영화 옵션을 제공
  - 항만 시설을 운영하거나 투자하고자 하는 민간 기업은 기존 국가 소유의 공공 기업을 인수하여 항만 전체 운영권을 가진 '통합 재산 복합체(Unified Property Complex)'를 운영하거나, 소액 투자자들이 뭉쳐 조인트 컴퍼니를 만들어 부분적으로 항만시설 운영권을 획득할 수 있음
  - 우크라이나 정부는 국가 공기업의 재조직과 민간합자회사 설립을 위하여 공공시설부(Ministry of Infrastructure), 경제개발부(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국가펀드(State Property Fund) 및 항만공사가 참여하여 본격적인 민영화에 앞서 시범 프로젝트를 수행할 계획임

< 오데사항 전경 >



< 우크라이나 지도 >



자료 : www.portstrategy.com, 2012.7.25

김일현 연구원 (☎ 02-2105-2914, blaze28@kmi.re.kr)

## □ 인도, 비진잠(Vizhinjam) 항만 개발 재입찰 발표

- 케랄라(Kerala) 주 정부는 비진잠(Vizhinjam) 항만의 개발 프로젝트에 단독 참여한 인도 기업 Welspun Infratech Limited의 입찰승인 내용을 철회하며 재입찰 발표
  - 주 정부는 Welspun Infratech Limited사의 재정적 건전성이 문제되어 단독입찰 승인을 취소하며 재입찰 공고 절차를 추진하기로 함
  - 비진잠 항만공사(Vizhinjam International Seaport Limited)는 터미널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입찰은 BOT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수심 준설과 선석 건설 및 터미널 운영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 예상 금액은 약 6,595crore(약 13억 1900만 달러)임
- 케랄라 주 정부는 비진잠 항만을 12,000TEU의 대형선박이 접안 할 수 있는 심수항만으로 개발할 예정
  - 총 선석길이는 2,000m로 3단계로 나누어 개발 될 예정이며, 수심은 16m로 준설 할 계획임

### < 비진잠(Vizhinjam) 항만개발 단계 >

구분	연간 목표 처리량(TEU)	선석 길이(m)	방파제 길이(m)	야드 면적(ha)
Phase 1	822,257	650	3,340	25.0
Phase 2	862,956	600	-	25.0
Phase 3	1,138,236	750	1,540	30.0
합계	2,823,449	2,000	4,880	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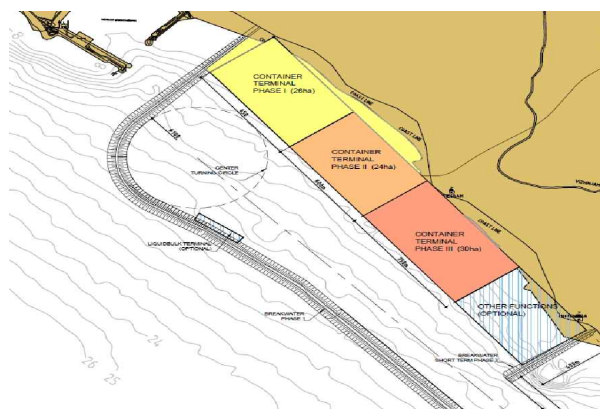
주 : Vizhinjam port, Strategic options report(2010, 11)

- 비진잠 항만은 동남아 및 중동으로 접근하는 항로에 지리적 이점이 있어 인도의 남서부 항만 중 비교적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
  - 주 정부에서 추진하는 특별경제구역도 향후 높은 경쟁력으로 평가되는 요인 중 하나임

### < 비진잠(Vizhinjam) 항만 위치 >



### < 터미널 개발 레이아웃 >



자료 : www.hellenicshippingnews.com, 2012.8.3/ vizhinjamport.in

전혜경 연구원 (☎ 02-2105-2982, saeii@kmi.re.kr)

## □ 필리핀, 마닐라 남항 항만 구역 확장 사업 입찰 계획 발표

- 필리핀 항만청(PPA, Philippine Ports Authority)은 민간합작투자를 통해 남항 항만 구역 확장(SHEPZ, South Harbor Expanded Port Zone) 사업을 추진하고, 여기에 참여할 민간기업은 입찰을 통해 선정할 예정
- 본 사업은 동쪽의 보니파시오 드라이브(Bonifacio Drive) 지역까지 재개발할 예정이며, 노후지역을 폐쇄하거나 상업항만으로 개발하는 것을 포함
  - 또한 36헥타르를 금융구역으로 전환시킬 예정이며, 이 중 20.79헥타르는 마닐라시가 개발을 직접 담당할 예정임
- 마닐라 남항의 현재 처리능력은 85만 TEU로, 2010년 적컨테이너 물동량은 50만 TEU이며 620만 톤을 처리
- 한편 마닐라 남항을 운영하고 있는 아시아 터미널 주식회사(ATI, Asian Terminals Inc.)는 터미널 확장 및 설비 확충을 위해 신규투자를 수행 할 예정
  - 2012년 4월, ATI 회장 Kun Wah Wong은 마닐라 남항에 2개의 크레인 구입 등을 위해 14억 페소<sup>1)</sup>를 지출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

< 마닐라항 위치 >



< 마닐라항 세부 전경 >



자료 : www.hellenicshippingnews.com, 2012.7.26

최은혜 연구원 (☎ 02-2105-2838, choeeunhye@kmi.re.kr)

1) 약 3,300만 달러 (2012.08.01 기준)

## 「2012년 제2차 해외투자사업 타당성 조사비용 지원 대상사업」 수요조사

해운물류관련 유망사업을 발굴하고 해운물류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고자 「2012년 제2차 해외투자사업 타당성조사비용 지원 대상사업」 수요조사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조사기간/사업예산** : 2012.7.25(수) 09:00 ~ 8.24(금) 15:00 / 134백만원

### 2. 대상기업

- 물류정책기본법에 의한 물류업을 영위하는 자  
(외국에 설립된 법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의 지분이 50%이상인 기업 포함)
- 국제물류투자펀드 운용사, 은행, 연기금 및 공제회 등 재무적 투자자

### 3. 보조금지원 대상사업

- 해운물류기업의 해외 항만 및 물류센터 개발 투자·운영권 확보
- 자원개발과 연계한 운송 및 자원물류시설 운영 등 참여
- 물류기업(해운선사, 3PL, 터미널 운영사 등)의 인수·합병 및 해외 파트너사와의 합작법인 설립 등

### 4. 보조금지원 금액

- 건당 최대 1억원까지 지급하고, 보조금액은 타당성 조사 소요비용에 따라 정을지원

사업비용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보조금 지원율	70%	60%	50%	1억원

-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되므로 실제 지급액은 보조금 지원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보다 적을수 있음

### 5. 접수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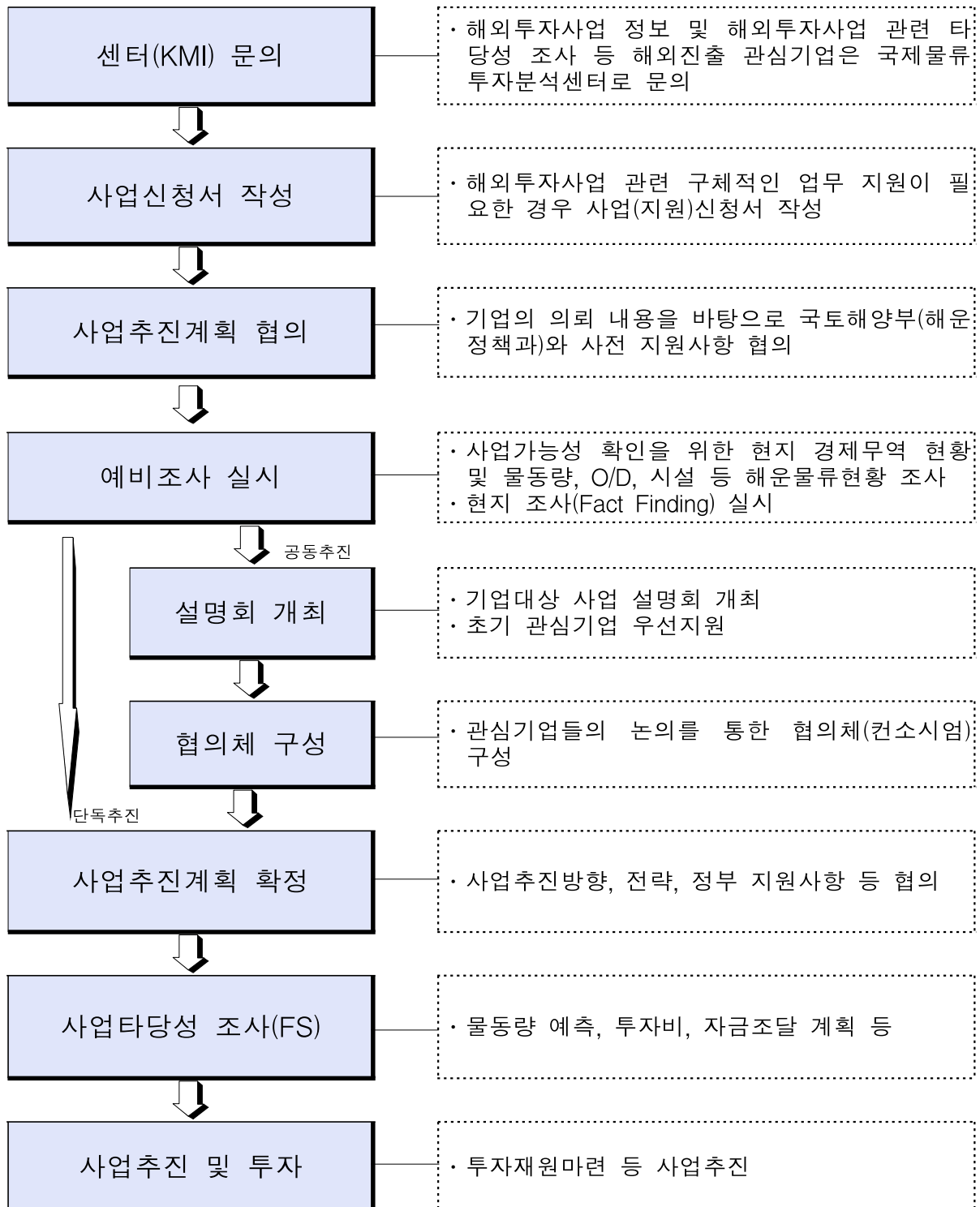
-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과천정부청사 4동 611호)
- 담당자 연락처 : 오영록/최희동 02-2110-6372, 8558
- 신청기업 관계자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  
(외국에 설립된 법인의 경우 신청기업 관계자가 아니더라도 대리자가 방문하여 신청 가능)

### 6. 기타 참고사항

- 심사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공고문 및 사업제안서 등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람  
(<http://www.mltm.go.kr>)
- 기타 사항은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02-2110-8558)로 문의하시기 바람



## [해외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센터 이용문의]



\* 기초타당성 조사(실비 부담), 정부간 협상, 투자사업 관련 정보 및 기초 자료 제공